“세계학자들 티베트 정보 활용에 도움 되길”

美연구원, 티베트 불교경전 및 의례 · 의식 연구해 전파

미국 과수원 농장 아들이 티베트 불교 경전을 번역하고 전파 보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콜로라도 예술 과학 매거진은 최근 티베트 불교의 현대화와 티베트 불교경전 번역 및 의례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인물을 소개했다.

에벤 요네티는 뉴욕 허드슨 밸리의 과수원을 하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대학시절 방황하던 그는 시에나 대학 재학 시절 네팔 · 히말라야 시민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네팔로 여행하면서 티베트 문화를 접하게 됐다.

그는 티베트 망명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종교적 공동체에 대해 배웠고, 결국 티베트인과 티베트 문화에 몰두하게 되면서 티베트어와 종교적 실천과 사상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대학원에서 티베트 불교를 전공으로 1970년에 티베트 불교가 어떻게 세계 각지로 퍼져 나갔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에벤 요네티는 “나는 학창시절 아이디어의 홍수 속에 방황하는 전형적인 반항아 학생이었다”며 네팔에서의 시절을 떠올렸다.

네팔과 인도에서의 시간동안 그는 불교사원에서 행하는 의식을 관찰하면서 붉은 가사 장삼을 입은 스님이 트럼펫을 치고 심벌즈와 북을 치는 것에 매료됐다.



에벤 요네티는 티베트 불교의 현대화와 티베트 불교경전 번역 및 의례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사진출처=콜로라도 예술 과학 매거진

네팔 여행 때 티베트 문화 접해
망명가정과 살며 종교공동체 배워
티베트어와 종교 사상 연구 결심

한번은 불교의식을 치르는 중 한 스님이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의식을 집행하던 스님은 주의가 산만해진 스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한줌의 쌀을 집어 들어 휙 던졌다.

요네티는 “불교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불교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사라졌다. 예전에는 철학과 명상에 대한 개념만 있었고, 불교계인들은 항상 신비롭고 매혹적이며 고상한 이상을 지녔다고만 생각했다”며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은 나에게 매우 생소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요네티는 백파이프를 연주했던 경험을 살려 티베트 음악을 연주하는 스님을 만나고 어떻게 티베트 음악이 종교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연구했다. 그의 연구 프로젝트 이름은 ‘티베트 불교의 의례음악과 창의성의 재발견’이란 제목으로, 불교행사에서 진행되는 음악적 의식과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는 의식 · 의례에 대한 연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네팔에서의 여행을 마친 후 요네티는 네팔 불교 국제학교에서 불교철학을 공부하고 가까운 수도원에서 스님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4개월을 보냈다.

요네티는 이번학기 부터는 놀린 도서관에 기증된 600여 종의 티베트어로 쓰인 서적을 조사할 계획이며, 차드라재단에서 장학금 지원도 받는다. 그는 아직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티베트의 종교, 역사 철학적 자료를 연구하는 작업에 몰두할 계획이다.

요네티는 “티베트 불교연구는 티베트 불교의 학문적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티베트 불교의 위대한 지도자들의 업적을 담은 작품들도 연구하게 된다”며 “이번 작업은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상당히 늘려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요네티는 도처에 있는 사찰의 종(鐘)과 티베트 불교 의식에 사용되는 도구와 그 사용법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오는 12월까지 개최한다.

이보형 객원기자





샌디에이고에 거주 중인 대니얼 아이젠먼은 최근 우는 아기를 진정시키는 법으로 ‘만트라’를 제시해 페이스북상에서 화제를 모았다.
사진출처=대니얼 아이젠먼 페이스북

우는 아기 단번에 진정시키는 법 ‘만트라’

미국의 한 남성, 우는 딸 ‘옴’ 소리로 진정시키는 영상 공개

아기가 너무 울어서 고민이라면 여기를 주목해보자. ‘우는 아기 진정시키는 방법’과 관련해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지만 최근 미국의 한 남성이 갓 태어난 자신의 딸이 우는 것을 멈추는 법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신기할 만큼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친 비법은 바로 ‘만트라(mantra: 진언)’.

화제의 주인공은 샌디에이고에서 동기부여 강사로 일하고 있는 대니얼 아이젠먼이다. 그는 4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딸 디비나가 울고 있는 영상과 함께 ‘#HowToStopACryingBaby(우는 아기를 멈추게 하는 법)’이란 해시태그를 달았다.

영상 속 디비나는 여느 갓난아기처럼 울다가 대니얼이 ‘옴’ 소리를 길게 하자 울음을 바로 멈췄다. 이게 끝이 아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대니얼이 20초간 ‘옴’ 소리를 유지하자 디비나가 잠에 빠져든 것.

이 영상은 3500만 명 이상이 이 영상을 조회했고, 약 37만 명이 공유하며 ‘만트라 자장가’에 관심을 나타냈다. 댓글에는 “아기가 전생에 불교 승려였나보다” “‘옴’ 소리가 자궁에서 들었던 소음 크기와 비슷해서가 아닐까” “아빠의 사랑이 전해진 것 같다” “내 손자에게도 해보았는데 깊이 잠들었다. 너무 신기하다” 등 폭발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승복 염색 · 카르마, 학교서 ‘큰 인기’

캐나다 중학교, 학생들 대상 불교식 학습법 전수 화제

캐나다 지역 언론 사크빌 트리뷴 포스트는 4월 25일 (현지시간) “마쉬뷰 중학교 학생들은 건강, 역사 커리큘럼의 일부 수업을 불교를 가르치는데 할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교사인 마리아벨츠는 지난해 9월부터 5~6학년 학생들에게 불교의 기초적인 교리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변화를 발견했다.

마리아 벨츠는 “학생들은 음식을 먹을 때 더 건강하게 먹는 법을 배우고 그 음식들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배운다. 이런 학습은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알게 해주고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배운다”고 말했다.

최근 캐나다 마운트앨리슨 대학교 동양종교 윤리학과는 마쉬뷰 중학교에 마음챙김과 불교에 관한 서적들을 제공하기 위해 방문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머리 모양을 딴 그림위에 색칠을 하며 셀프 자각 명상을 한다. 또한 큰 그릇에 강황가루를 담고 물을 섞어 정사각형의 천을 그릇에 넣는다. 스님들이 다양한 향신료 가루를 사용해 승복을 염색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머리 모양을 딴 그림위에 색칠을 하며 셀프 자각 명상을 한다.
사진출처=사크빌 트리뷴 포스트

이밖에 학생들은 명상에 집중 할 수 있는 악기와 의식에 대해서 배우고 스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채식과 카르마에 대해서도 배운다.

마리아벨츠는 “이러한 수업들은 아이들 나이 또래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와 상황들을 해결하고 방법을 찾는데 힘을 기르는 것은 중요하다”며 “우리가 가르치는 교육은 학교 바깥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고 덧붙였다.

이보형 객원기자

日사찰, 두 스님에 4년 밀린 시간 외 수당 지급

관례상 지급 거부하다 외부노조 대리협상

일본의 한 사찰이 “승려에게 사중 소임은 자기연찬”이라며 소속 스님 2명에게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4년 만에 밀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교토에 위치한 진종대곡파 본사 히가시혼간지(東本願寺)는 승적을 보유한 前 직원 2명에게 4년간 밀린 시간 외 수당 657만 엔(약 6,650만원)을 지급했다.

소속 스님에겐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게 관례라며 그동안 지급을 거부하다가 외부노조가 대리협상을 벌인 끝에 밀린 시간 외 수당을 전부 지급한 것.

A스님(38)과 B스님(34)은 사찰 신도들을 안내하고 돌보는 보도(補導)로 201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근무했다. 기본 숙직 근무 외에도 바쁜 달에는 초과 근무가 100시간 이상이었지만 시간 외 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두 스님은 외부 노동조합인 ‘교토 유니언’에 도움을 요청, 노조 측은 단체교섭에 나섰다. 이에 사찰 측이 노무관리가 불충분했단 사실이 인정돼 대가지급을 요구한 두 사람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사찰 측은 앞으로 근무시간을 체크하는 타임카드를 도입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도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한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스님은 “우리 외에도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한 직원이 있다”면서 “일자리를 잃을까 무서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올해 3월 말로 4년간 임기가 만료된 A스님과 B스님도 희망하면 1년 연장하는 관례에 따라 연장을 희망했지만 사찰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퇴직했다.



히가시혼간지 전경.
사진출처=위키피디아

보도가 시간 외 수당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찰 종무소 총무부장은 “아무리 사찰이라도 공짜로 일을 시켜선 안 된다”며 “사찰이 1973년 ‘시간 외 수당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명하지만, 그 내용도 시대에 맞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위패몰.com

원로대덕스님들께 삼가 문안인사 올립니다.

사찰에서 살다보니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쓰다보니 주위에서 나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다보니 이렇게 지면을 통하여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쓰기 좋고 보기 좋으며 법당내의 격을 높이고자 감히 디자인 하고 고안하였습니다.

조상의 왕생극락을 불전에 기원하는 후손들의 정성을 섭인(攝引)하여 법당을 여법하게 장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문(沙門) 일허(一虛) 나무 관세음보살



2단 합동위패 ①

2단 합동위패 ②

3단 합동위패 ①

용전대 ①

용전대 ②

목걸이마이크 ①

목걸이마이크②

축원카드 보관함



소대위패①



소대위패②

살펴보시고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부산 서구 남부민동 93-1번지
☎051)244-2040

위패몰.com

七寶寺



문화재기능인목조각 제5772호 · 대한민국대한명인수미단 제483호

보리수불교예술원

DAUM NAVER

네이버는 검색창에서 보리수불교예술원 검색 ⇨ 카페 앨범 검색 ⇨ 목록 검색하시고,
다음에서는 다음카페 검색하시면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상, 닫집, 수미단, 사천왕, 건축, 목탱화, 법상, 경탁,
경상, 현판, 주련, 복전함, 인등, 연, 단청, 개금



대표 오동렬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54-10 wangborisu@hanmail.net
전화 031)573-1269 / 010-5254-7596